

파라디들을 활용한 베이스 기타 슬랩 연주법 연구

장문권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공연예술경영학과

e-mail: moongunz@daum.net

A Study on the Slap Performance Method of Bass Guitar Using Paradiddle

Moon-Kweon Jang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Technology

요약

본 논문은 베이스 기타 연주에서 드럼의 타악기적인 요소가 적용되어 연주되는 슬랩 연습방법에 관한 논문이다. 베이스 기타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팬더의 프레시전 베이스 등장 이후 수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주법과 연습법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기존의 연습법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새로운 연습 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드럼의 기본적인 스트로크 연습 방법의 하나인 파라디들의 패턴을 베이스 기타에 적용하여 그 활용법을 제시한다. 드럼의 오른손과 왼손이라는 두 메체를 베이스 기타의 슬랩 연주 시에 사용되는 엄지와 검지를 대입하여 드럼과 같은 방식으로 패턴을 적용해보았다. 드럼 파리디들 연습에서 사용되는 싱글 파라디들, 더블 파라디들, 트리플 파라디들 그리고 파라디들 디들의 패턴을 통해 베이스 기타의 옥타브 슬랩 연습 방법에 적용한 결과, 드럼의 파라디들 연습 패턴의 활용과 적용이 베이스 기타의 슬랩 연주에 상당히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베이스 기타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변형된 형태의 연습 패턴도 적용이 가능해 보였다. 나아가 파라디들 패턴을 다른 악기들에게도 확장하여 사용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성이 보일 것 같았으며, 이는 추후 다시 각 악기들마다 새롭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 서론

현재의 모든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는 1950년대 레오 팬더가 제작한 프레시전 베이스가 그 시작이다[1]. 초기 재즈 음악의 저음 파트 연주를 맡아왔던 튜바는 이후 콘트라베이스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고, 다시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가 그 역할을 넘겨 받았다. 이후 베이스 기타는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증폭된 사운드를 구사하는 최적의 악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베이스 기타는 현재도 다양한 오른 손 연주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타악기의 리듬적인 요소가 많은 슬랩 연주법은 이 악기의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리듬 표현의 자유를 이루게 하였다.

초기 연주법은 평거 스타일로 정의되는 제임스 제머슨(James J amerson)의 연주법이 유명하며, 슬랩(Slap) 연주법은 그 창시자가 레리 그레햄(Larry Graham)이다. 그의 슬랩 연주법의 시작은 드럼의 Kick의 흥내를 오른 손 엄지손가락으로 코드의 낮은 근음을 때리고(Thumpin), 스네어(Snare)의 높은 소리를 검지나 중지로 손가락을 걸어서 텅기는(Pluckin) 형태로서 타악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슬랩 연주법을 효과적으로 연주해내기 위한 연습 방법을 제시한다.

타악기적인 요소를 베이스 기타에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서 드럼의 가장 기본적인 연주 기술의 하나인 루디먼트(Rudiment)의 핵심 스트로크 패턴 연습 방법인 파라디들(Paradiddle)을 활용하여 베이스 기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방법은 파라디들 드럼 연주 시에 왼손(L), 오른손(R)의 다양한 방법을 베이스 기타 연주 시에 사용하는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대체하여 연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론

[그림 1]은 일반적인 드럼 악보이며 왼손과 오른손을 어떻게 배분하여 연주를 하라고 표기되어 있다[2].



[그림 1] 드럼 악보의 왼손 오른손 연주 표시

이처럼 드럼 연주에서 양 손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하여 연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응용된 파라디들 패턴의 연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 악기인 베이스 기타의 슬랩 연주는 타악기적인 요소가 많다. 이러한 타악적인 연주를 드럼의 연습 방법에서 활용하여 각각 여러 패턴을 활용한 사례를 연구해본다.

파라디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RLRR LRLL 의 조합으로 16분 음표 리듬을 연주한다[3]. 이러한 패턴을 R의 자리에 베이스 기타 연주 시에는 오른 손 검지로 Thumpin(T로 표기), L의 자리에는 검지로 Piuckin(P로 표기) 연주를 한다. 이때의 기본적인 코드의 근음인 저음은 T로 연주하고 P는 한 옥타브 위에 음을 연주하는 형태로 조합해본다. 드럼 연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엄지와 검지를 전환하여 사용한다면 복잡하고 다양한 연주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2.1 싱글 파라디들(Single Paradiddle) 패턴 활용

앞에서 언급한 패턴인 RLRR LRLL은 싱글 파라디들(Single Paradiddle) 패턴이며 이는 RL 또는 LR을 의미하는 파라(Para) 와 한 쌍의 더블 스트로크 패턴인 디들(diddle), 즉 RR 또는 LL을 합친 것과 같다. 이러한 형태의 패턴을 베이스 기타에 적용한다면 [악보 1]과 같이 연주 할 수 있다.



[악보 1] 싱글 파라디들 패턴 활용 사례

이 패턴은 베이스 기타의 기본적인 옥타브 연주법인 T와 P를 연속적으로 연주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T를 연속적으로 또는 P를 연속적으로 연주해야하는 확장된 방법으로 초기 연습 시에는 힘들지만 아주 유용한 연습이며,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Diddle 응용의 시작으로 엄지와 검지의 터치 밸런스를 고르게 잡아주는 연습 방법이다.

2.2 더블 파라디들(Double Paradiddle) 패턴 활용

더블 파라디들의 기본패턴은 싱글 파라디들에서 확장된 패턴으로 RLRR 앞에 RL이 연주되거나, 싱글 스트로크인 RLRL이렇게 2쌍이 나오고 더블 스트로크인 RR이 연주되는 형태이다. 결국 RLRLRR의 형태가 되며 두 손이 합쳐진 형태는 RLRLRR LRLRLL 패턴으로 ‘Para–Para–Diddle’의 모습을 가진다. 이 패턴의 의미는 RL + RLRR, LR + LRLL의 구조도로 해석 할 수 있다.

[악보 2]와 [악보 3]에서와 같이 더블 파라디들은 6타가 기본 패턴이기에 8분 음표 3연음이나 16분 음표의 3연속음에서 응용하

기 적합하다.

[악보 3]에서와 같은 6연음이 빠른 템포에서 연주되기 위해서는 베이스 기타는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며 특히 하프타임 셔플(Half Time Shuffle)리듬의 응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악보 2] 더블 파라디들 패턴 3연음 활용 사례



[악보 3] 더블 파라디들 패턴 6연음 활용 사례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디들 연주 패턴인 RR, LL같은 연주에 ♦R이나 ♦L 등의 형태로 쉼표를 적용하여 변형하면 다양한 연주 패턴이 조합될 것이다.

2.3 트리플 파라디들(Triple Paradiddle) 패턴 활용

[악보 4]는 트리플 파라디들은 RL + RL + RL + RR 과 LR + LR + LR + LL 과 같은 형태를 가진 패턴이다. 이는 패턴의 형태가 ‘Para–Para–Para–Diddle’의 조합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RLRL에 싱글 파라디들 RLRR을 합쳐 놓은 형태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8개의 음이 있는 패턴이기에 4/4박자에서 16분음표로 연주된다면 이상적이다. 베이스 기타의 엄지와 검지의 패턴으로 적용하게 되면 TPTP TPTT / PTPT PTTP의 패턴으로 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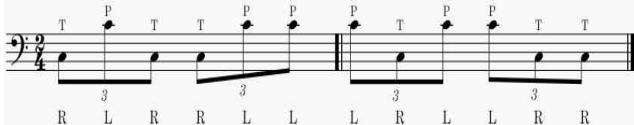


[악보 4] 트리플 파라디들 패턴 활용 사례

2.4 파라디들 디들(Paradiddle Diddle) 패턴 활용

파라디들 디들 패턴은 6개의 음이 한 번에 연주되는 패턴으로 자주 사용된다. 기본적인 파라디들 패턴에 시작한 손이 다른 디들 패턴을 붙인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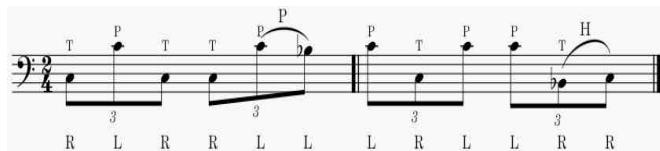
[악보 5]처럼 하나의 마디씩 따로 독립적인 패턴을 연주하여도 좋으며, 1마디와 2 마디의 패턴 두 개를 같이 연주하여도 유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6개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3연음 느낌에 잘 어울리며 16분 음표 3연음, 6연음, 8분 음표 3연음 등이 조합된 연주에 용이하다.



[악보 5] 파라디들 디들 패턴 활용 사례

2.5 변형된 파라다들(Paradiddle) 패턴 활용

기본적인 RLRR 패턴에서 LL 부분이나 LRLL 패턴에서 RR 부분에서 베이스 기타에서 빈번하게 연주되는 해머링 온(Hammer on) 또는 풀링 오프(Pulling off)를 이용하여 패턴 연습의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악보 6]은 그 사용 예이며 해머링 온(Hammer on) 또는 풀링 오프(Pulling off)를 서로 바꿔서 패턴을 연습하여도 유용하다.



[악보 6] 파라디들 패턴 변형과 응용 사례1

지금까지의 패턴은 R과 L을 근음과 옥타브 음을 사용하여 연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확장해서 연습 할 시에는 R을 근음에 두고 L을 나머지 코드 톤으로 활용하거나 코드 스케일이 적용되는 여러 음들을 고르게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악보 7] 파라디들 패턴 변형과 응용 사례2

또한 [악보 7]과 같이 뮤트 음을 이용해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악보 6]의 해머링 온(Hammer on) 또는 풀링 오프(Pulling off)와 [악보 7]을 혼합하여 다양한 연습 패턴도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 연습 할 수도 있다. [악보 8]은 그 사용 사례이다. 패턴 연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지와 검지가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로 기본으로 연습하여 익숙해진 뒤에 서로 손 가락을 교체하여 왼손과 오른 손으로 역할을 바꾸어서 적용하여도 새로운 유용한 연습이 될 것이다.

3. 결론

드럼의 기본적인 루디먼트의 파라디들 연습은 왼손 오른손이라는 두 개의 매체를 가지고 다양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연습 방법이다. 이러한 두 개의 매체를 연주 시 사용하는 악기 중에 베이스 기타를 중심으로, 드럼의 파라디들 연습 패턴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드럼의 타악기적인 요소가 잘 표현되기 위해 베이스 기타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활용한 슬랩 연주 패턴에 적용하였다. 이는 다시 베이스 기타의 평거링에 사용되는 두 개의 매체인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적용하여 연습하여도 아주 실용적일 것이다. 또한 두 개의 매체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악기들인 기타 피크의 업 피킹(Up picking)과 다운 피킹(down picking), 현악기의 보잉(Bowing) 연주의 다운 보우와 업 보우, 관악기의 텅잉(Tonguing)과 슬러(Slur) 그리고 피아노의 왼손 오른손의 조합 등은 파라디들 패턴이 음악 표현에서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스 기타에 한정한 연구였으나 추후 파라디들 연습 패턴이 다른 많은 악기에서도 적용되어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1]

<https://blog.naver.com/woongsama486/223808050866>

2025년 09월 23일 검색 인용

[2] <https://blog.naver.com/jeckey78/222560516982>

2025년 09월 23일 검색 인용

[3] 전재우, “펌킨스 드럼 루디먼트: 더블스트로크와 파라디들편”
서울음악출판사, 2월 2019년.